

정치의 계절에 상상하는 예술적인 소망

만약 당신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면? “시 읽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
부 장관이 된다면 ‘작가 학교’를 짓겠어요.” 이렇게 ‘우리 문
화예술계에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어도, 이를 들어
주는 마땅한 창구가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상상민원실’
을 마련했다. 연극배우, 작가부터 고등학생 소녀, 가정주부
에 이르기까지 스물 한 명의 예술애호가들이 상상하는 행복
한 문화사회의 모습.

그림 정책영 화가



일을 ‘덜’ 합시다

장인종 음악평론가

제레미 리프킨은 지금의 노동사회가 문화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연간 노동시간이 800~90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몇몇 유럽국가의 연간 노동시간은
1300~1400시간, 미국은 1800시간, OECD 평균은 1700시간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305시간으로 올해
국제노동기구가 조사한 52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쥐꼬리만한
여가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란 대체 무엇이
있을까? 짧은 시간에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극적인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TV 시청과 같이 수동적인 활동으로나마
딱딱한 삶을 달래는 것이 고작일 게다. 문화생활을 위해 자기
시간을 투자하기란 지금의 현실에선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삶의 질 향상도 문화예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돈의 시대’라 하는 요즘,
일을 ‘덜’ 하자는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삶은 팔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향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문화부 장관이라면

어느날문득 청소년 사이버 문학광장 ‘글턴’ 회원

내가 만일 문화부 장관이 된다면 재정적인 위기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작가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 중에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작가 학교’이다. 지금의 특목고, 과학교와 같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이 학교가 예술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예술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글을 쓰는 방법과 문학적인
사고를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이 학교의 교사는
현직 소설가, 시인, 비평가, 기자 등등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매주, 매달, 매년
학교에서 백일장을 열어 장학금과 상장을 주고 연말에 열리는
연말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게 되면 작가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

이진준 시각예술가

어느 날 아침, 현대미술 작가로 영상 및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에게 현대무용 공연에 대한 소개글이
이메일로 배달되었다. 여러 가지 영상 설치적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시도의 작품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음악을 전공한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시간과
장소를 물어본다. 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정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2장의 표를 예매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자 내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다면서
90%를 할인해준다. 10%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내야만 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한국의 예술가 지원을 위한 제도에서
보충해주는 것이다. 즐거운 기분으로 예약을 하고 공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연출과 무용수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저녁식사에서 만난 작가 동료에게 이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보러 가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을
하니, 경제적 부담이 없는 공연이라 시간만 맞으면 같이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새로 구한 작업실로 와서 나의 드로잉북들과 여러 가지
스크랩 해놓은 자료들을 정리한다. 그 참에 그 공연에 관한
사전 자료들도 함께 스크랩하고 몇 가지 드로잉을 해본다.
때마침 작업실 계약을 위해 부동산 업자와 작업실 주인이
방문하였다. 전세금 설정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각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언급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자, 부동산 업자는
즉시 국가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신청서를 꺼내며 양식에
맞춰 서류를 함께 작성한다. 결국 전체 전세 금액의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50%는 작가가 지불하여 체결된 금액을

주인은 만족한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약서를 카피해서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세금 감면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헤어진다. 그 다음날 나와 아내는 드로잉북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현대무용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의 새로운 작업 구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가 예술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작업실로 돌아간다.

나무는 뿌리내리고 싶다

멜고느린구름 초등과정 대안학교 '행복한 교사'의 교사, 작가

언론은 '한류' 운운하며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을 포장하기 바빠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 이해득실과 맞닿아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문화는 잘 팔리는 문화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류'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잘 팔린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일까. 과연 문화강국이란 잘 팔리는 문화를 가진 나라를 뜻하는 말인가.

우리가 문화강국이라 여기는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 등을 보면 우리 언론의 목소리가 어찌든 호들갑스럽게 느껴진다. 일본이 '일류'니 어쩌니 하며 떠들기 때문에 세계가 일본의 문화에 집중하는 것일까. 유럽이 그토록 많은 관광객들의 발을 끌어당기는 것이 EU의 적극적 홍보 때문일까. 언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야기하며, 그가 유명해진 까닭은 일본의 탁월한 홍보 전략에 있다고 분석을 하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홍보 전략을 펼치더라도 지푸라기를 황금이라고 속일 수는 없다. 더욱이 그것이 순간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영혼을 담고 있는 문화라면 말이다.

'문화는 질은 진심이 담긴 향기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치게 낭만적인 발언일까. 허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결국 문화는 마음이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전해지는 것이라고. 아무리 보기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땅에 단단히 내려 있지 않으면 이내 썩고 악취가 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떠들고 있는

'한류'는 어쩌면 그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아닐지 우려된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계를 보면 우연히 태어난 '천재'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의 나무들이 자라날 토양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 싹들은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한 채 뽑혀 나간다. 대여점과 불법 스캔문화로 인해 한 달 생계도 꾸러가지 못할 정도가 된 인기(?) 만화가, 불법 음원 다운로드 탓에 세계 음악사에 남을 걸작을 남기고도 걸레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음악인, 투잡을 하지 않으면 펜을 쥐어보지도 못할 처지가 된 문인, 우후죽순 늘어나는 섹시바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대학로의 연극인, 자본의 힘에 눌려 좋은 작품을 만들고도 개봉을 못하는 영화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한 점 한 점 부끄러울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용감하게도 '문화강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도 천만 명을 동원할 작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당신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쓰면 되지 않겠냐고, 당신은 왜 비틀즈가 되지 못하냐고, 잘 나가는 우리 한류를 보라고, 유럽의 인기 끄는 만화가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연극인과 외국에서 문학상을 받는 교포들을 보시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문화란 소수의 천재들이 국가에 부를 가져다주는 경제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이다. 오히려 문화란 천재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두고 스스로 창작하고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이르는 말이다. 하루키처럼 많은 책을 팔 수 없어도 남몰래 자기만의 소설을 써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문화강국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에게 메일 한 통 보낼 때 고운 시 하나 붙여 보낼 수 있는 이들이 많은 나라가 문화강국이다. 프로 수준은 아니어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한 가지씩은 가진 국민이, 진실로 음악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음악 창작자들을 지지해주는 나라가 문화강국이다. 화가라는 직함을 가지지 않아도 조그만 스케치북에 삶의 풍경들을 고즈넉이 그려 넣어보는 이들이 많은 나라가 문화강국이다.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보다 고된 하루하루를 꾸러가는 만화가의 생활을 걱정해주는 참된 독자가 있는 나라가 문화강국이다. 이런 문화강국은 예술가를 존중하는 사회의 체제로부터 태어난다.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예술가가 존경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문화를 창조하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자본의 힘에 밀려 사회의 낙오자 취급을 받는다면 그 속에서 과연 어떤 대단한 문화가 꽃필 수 있겠는가. 나무는 뿌리내리고 싶다. 그리고 깊고 진한 향을 피워내고 싶다. 우리에게 온 지구로 퍼져나갈 만한 아름다운 향이 있다. 그 향은 세계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의 몸에 스며야 할 것이다. '한류'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진실로 두드려야 한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무성한 나무의 이파리들과 그 이파리들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득에 신경 쓰기보다는 저 땅 깊이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가없는 문화의 뿌리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는 관객이 절실하다

오랑 청소년 사이버 문화광장 '글틴' 회원

한국 문화예술의 문제는 작가,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관객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객에게도 자격은 필요하다. 일반 대중들은 노출도나 화려함에만 신경 쓰고, 작품성보다는 대중성을 본다.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 주요교과의 자습시간으로 변해버린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과목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법이 아니라 감상하는 눈을 키워줘야 한다. 시인이 가난한 것은 시의 독자가 없어서이지, 결코 시가 못나서가 아니다. 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 살게 되는데, 이들에게 무대를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가. 관객이 배우를 만들어내는 법인데, 관객이 '쇼'만을 원하는 이상 예술이 설 자리는 없다. 지금 이 땅에는 관객이 절실하다.



연극인들이 어깨 펴고 공연 만들 수 있는 세상

정해균 극단 여행자 운영자 겸 배우

안녕하십니까! 극단 여행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해균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배우로서 또한 극단 운영자로서 몇 가지만 피력하고자 합니다. 연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 부유한 환경에서 창작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예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집단창작 예술인 연극은 여타 개인창작 예술과는 달리, 그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또한 창작환경의 열악함은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문화적인 역사의 깊이로 미루어 본다면 지금의 지원정책이나 행정방식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선진국을 표방하며 한류가 아시아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 이때에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개인이 또는 사설단체가 지금의 주어진 조건에서 내실을 다지고 세계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개발하기엔 그 끝이 너무도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극단은 그나마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공연을 많이 다니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극단임에도 항상 모든 단원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가슴 졸이며 살아갑니다. 모든 예술인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창작활동에 대한 열의를 불태울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예술도 있다는 논리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문화가 정치와 문화가 경제인 추세로 가고 있는 21세기에 적어도 문화를, 예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정부에서 문화예술 정보나 공연기획에 관한 사이트 하나쯤 운영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문학이나 공연,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정부에서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실효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예술을 하는 것이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예술인이 바라는 제일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마다 항상 예술지원 정책은 뒷전입니다. 민심을 사기 위한 공약들은 많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공장 근로자를 만나 안전모 쓰고 막걸리 한잔 하는 모습 옆에, 공연장을 나와서 예술인과 소주 한잔 하는 대선주자의 모습도 보고 싶네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긍심 갖고 살 수 있게, 연극인들이 어깨 펴고 공연 만들 수 있는 정책, 지원 부탁드립니다. 행정가를 만나보기 이전에 야전에서 고군분투하는 창작인들을 먼저 만나시고 정책에 대한 의견, 고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언제나 예술이 있었다

이진아 문화 칼럼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예술은 그대가 누구일지 그리 많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연일 폭로되는 것처럼 그대를 위해 숨겨놓을 비자금도 없고, 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먼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누구였던들 그간 우리는 보호받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했고, 격려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도우며 풍요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상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누가 되시건 간에 이것 하나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에게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혹은 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가족 앞에서 불러준 동요나 짧은 율동이나, 가족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와 그대의 가족은 모여 앉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대의 바쁜 일과에 잔잔한 극성을 주었던 바로 그 작은 사건은 그동안 인류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예술이라는 형식에 많은 부분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 어린이를 위해 누군가는 악보를 읽고 노래하는 것이나, 몸을 가누어 춤을 추는 것이나, 크레용을 손에 쥐어 선을 그리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가족을 모이게 하고, 친구와 휴식하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나누게 해줬던 매개체가 예술이라는 것을, 혹은 스스로가 몰입하여 기뻐하는 취미에 그대의 일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관을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대의 관심 대상을 여러 모로 도울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만일 그대가 보다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바로 그 기억을 돌이키며 무엇을 배려해야 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이 아니라 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문예회관

김현주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업지원팀장

지금은 명물이 된 예술의전당 음악분수도 초기에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답니다. 한번 운행할 때마다 돈이 얼마냐고 하며, 꺼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면, 만드는 데 든 돈마저 허비한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 올해는 쌀쌀한 날씨에도 연장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문예회관도 짓는 데 큰돈이 들어갔지만 제 역할을 바로 한다면



이렇게 주민을 사랑을 받았지요.

문예회관은 전국에 150개가 넘게 지어진 공공문화시설입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답인지는 주민이나 문화예술인 행정가 모두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문예회관의 활성화가 지역문화 발전에 관련이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예회관'이라는 대상은 문젯거리로만 인식되었을 뿐, 별다른 정책도 없고 지원도 적었습니다. 정작 문예회관 관련법조차 없고,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연간 사업비가 몇 천만 원에 불과하여 공연 한두 번 하기도 빠듯한 실정으로,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운영의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들께서는 다들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경제에 관해 많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 지역의 문화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문예회관과 관련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여러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지역의 문화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정책 방향에 따른 지속적 지원입니다. 문예회관이 활성화되어 지역 곳곳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문예회관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닐 것이고, 주민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공간이 될 거란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 읽어주는 대통령(?)

장미숙 가정주부

나는 무겁고 딱딱하고 권위적인 대통령은 싫다. 대통령도 일반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뎀감도 있고, 무엇보다 가슴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서 책을 볼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탓에 아이는 점점 책하고 멀어지게 되었다. 그건 비단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화강국으로서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 국민들의 높은 독서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들의 한달 독서량은 책 한 권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교생이 19.4권, 중학생 9.5권, 고등학생 6.3권이라고 한다. 아무리 문화강국을 외쳐보지만 국민들의 독서 수준이 낮다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는 없을 것이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과 가까워져야 하며 책에 대한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두 달 전, 이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라며 휴지와 세제 등을 들고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보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책을 사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건 내가 비단 책을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책을 주고받는 습관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사한 집에 책을 사들고 가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휴지보다 더 나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을 각종 책으로 바꿔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부터 비싼 선물 대신 책을 주고받는다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또한 독서량이 증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공중파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시를 읽어주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동시도 한번쯤 읽어주면 좋겠다. 시를 읽어주는 대통령, 생각만 해도 멋지다. 물론 대통령이 감상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국민들의 독서함양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한번쯤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가만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대통령이 동시 읽는 모습을….

콩 타작을 하였다/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콩콩 뛰어와와/
뜨르르르르 뜨르르르르/뜨르르르르 /뜨르르르르/굴러
간다 굴러 간다/콩 잡아라 콩 잡아라/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어, 어, 저 콩 좀 봐라/쥐구멍으로
뜨르르르르/쏘옥 쏘옥 들어 가네/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시인의 <콩, 너는 죽었다>라는 시인데 대통령이 만약
이런 시를 읽어준다면 동시집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등쌀에 못 이겨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점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 아! 이견 너무 유치찬란한 발상인가.
그래도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좋아할 것 같다.

브라질 축구가 강한 이유는 골목마다 축구열기가 있기 때문

류순자 경기도 화성예총 사무국장

큰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큰 정책을 따라잡기 역부족이다. 행정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술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은 예술의 그림자도 밝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관적, 실적 위주의 예술은 2%로 족하다. 나머지 98%는 시민의식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브라질 축구가 강한 이유는 골목마다 축구의 열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우리 예술도 골목마다 노래방처럼 즐거움으로 다가야 한다. 천 년 한국을 대비한 뿌리 깊은 예술은 시민의식에 달려있지 정책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에

관한한 철저히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민선이라지만 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께서 당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나라가 흥한다는 걸...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예술정책!! 꼭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시험치기 위한 예술은 이제 그만

마유미 청소년 사이버 문학광장 '글틴' 회원

문화예술을 위한다면 공교육부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문화예술 교육은 대부분이 형식적인 것이나 수행평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술, 음악과 같은 시간은 타 과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도 그 시간에는 내신 산출을 위한 수행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리코더나 단소 등 악기시험이나 쳄코 시험이 임박하면 프린트를 몇 장 줘서 외우라는 것이었을 뿐, 예술은 시험을 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문학에서조차도 소설이나 수필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구조와 틀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파악했고, 독서감상문도 규격이나 틀에 얽매어 점수를 주는 식이었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다면 제대로 된 공교육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김형무 미술작가

대한민국에서 작가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이는 거의 없을 듯하다. 더욱이 경제적 문제로 접근할라 치면 그 고민의 깊이는 더 깊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열풍의 수준을 넘어 광풍 수준이라 할 만하다. 미술품에 대한 투자 열풍이 지금처럼 고조된 상황에서 한번쯤 짚어봐야 할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가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작가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정작 작가는 소외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미술시장은 궁극적으로 작가들의 사기 저하와 작품에 대한 고민의 질적 저하로 인해 그 폐해가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대승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작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공정한 현실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지원 공모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양식의 간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양식 작성은 지나치게 복잡해 형식적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각종 공모 프로그램의 지원 결정에 여전히 비리에 대한 염려가 존재하는데 투명한 선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투자, 혹은 예산 확보가 더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기형적 미술 시장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양한 관점과 지속적인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익명의 작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예 구제적인 방안과 대책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전통과 특색이 있는 해외의 극장이 부럽다

임우철 극단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연극배우

저는 현장에서 10여 년째 직업 연극배우로 일하고 있는 임우철입니다.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공연 문화예술은 지금 기형적인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완전 소멸되든지 손 쓸 수 없을 만큼 더욱 변형될 것 입니다. 무슨 근거냐고요? 6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고가의 공연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잘 팔립니다. 자주 매진을 이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0원짜리 공연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달 한 번씩 가졌던 <1000원의 행복> 공연 시리즈엔 지금까지

총 14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고가 공연도 잘 팔리고 저가 공연도 잘 팔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연은 모두 잘 팔리고 잘 되는 것일까요? 둘 다 매진이지만 대상층의 수는 완전 피라미드 형태를 이룹니다. 2007년 1월 세종문화회관의 870명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선 81.7%가 공연 티켓 값이 비싸서 공연장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싼 티켓 때문에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문화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아니면 고가 공연을 보는 소수를 위한 문화 정책을 펴야 할까요? 둘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 평등주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먼저는 대다수의 국민들 아닐까요?

사실 1000원짜리 공연은 부담 없이 공연 예술을 즐기도록 하자는 특별 기획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아주 고가가 아니라면 연극과 무용, 음악 공연들은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죠. 그럼 공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연을 만드는 예술가들은 돈을 넉넉히 만족스럽게 벌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연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입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자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노조라도 만들어라, 그러더군요. 공연이 고가가 아니거나 1000원의 공연이



아니면 공연들의 객석을 채울 수 없기에 예술인들은 늘 적자 상태입니다.

해결지점은 있습니다. 비싸다면 싸게 만들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보러 오고 향유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티켓 값을 낮추려면 예술인들은 더 궁핍해지겠죠.

잠깐 누구라도 아는 경제 원리를 빌려오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유통 경로를 최소화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거! 상식이죠. 상식대로 합시다. 현재는 순수 예술인들이 직접 유통과 마케팅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전문 기획회사에 의뢰를 주지만 순수 예술인과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획단체 사이에서 결국 피해는 관객과 순수

예술인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현재의 공연예술 기획이라는 것이 극히 단순하고 소모적인 행태로 이루어지고 공공성을

띠지는 못합니다.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전문성을 띠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술인이 해내지 못하고 소모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해결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통의 단계가 예술인-극장-일반 관객 이렇게 단순화해야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극장을 대관하고, 기획사에서는 신문에 기사 몇

편 올려 관객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입니다. 극장 측은 단순히 대관만 하기 때문에 관객이 많이 오건 말건 상관없이 대여금만

받아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마치 주택 임대 사업자 같죠. 예술인-극장-일반 관객의 세 단계가 구축되면, 예술인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공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럼 극장은 현재처럼 단순 대관이 아니라

그 예술작품을 사고 이것을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극장이 주택 임대 사업자처럼 굴지 말고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적극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외국을 다니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그곳의 극장들이

관객에게 대단히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전통과 문화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극장만의 프로그램

특화와 다양한 마케팅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것입니다. “그 극장은 어떠한 공연들로 굉장히 유명해. 그곳 공연은

놓치면 안 돼.” 이런 극장들이 많죠. 우리나라 극장들은 건물이 오래됐다는 점이 자랑일 뿐, 그동안 축적된 공연 전통도, 개성도

특성도 없습니다. 단순 대관만 되풀이하다보니 정말 가고 싶은 특색 있는 극장이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극장에서 일반 무용 단체들의 신선하고 좋은 작품들을 선별하여 국립극장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국립극장이 선택한 무용’. 그러면 일반 관객은 그 브랜드를 믿고 극장을 찾고, 예술인들은

공연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극장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관객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국립예술단체들도 자극을 받겠죠. 신선한 예술작품들이 자신들보다 더 인기 있다는 걸 실감한다면요.

현재 순수공연예술 단체들은 국가의 지원금 없이는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원금을 따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술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게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죠. 이런 현실 때문에 예술인들이 자주

권력화되려 합니다. 소위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한 구조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 무리 속에서 교수님들과 친분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 받았으니 성과 보이는 작업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쓸 데 없는 것에 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입니까? 얼마나 소비적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공연이 조금이라도 싸지고 그 질이 좋아진다면 관객은 찾아오고,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극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극장이 특색을 가진다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 단순 평준화가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특색화가 서로 살 길입니다. 문화는 물질적

생산이 아닌 정신적 생산의 원천입니다. 정신이 없다면 물질은 없습니다. 선진국의 외형이나 물질적 규모만 보지 말고 그들의 실질적 과정과 만족도,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치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닮은 정치를 꿈꾸며

김미주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지금, 정치의 계절,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여성과 남성, 장애가 있음과 없음, 나이듦과 어림 그리고 낡음과 새것. 이 모든 것이

소통을 원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 이 모습이 예술입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놀이이고 삶이고 난장이어야 합니다. 표현이 예술이라면 정치는 가장 예술적인 행위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닮은 정치,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문화강국이 경제강국이다

홍혜주 직장인

세계관광기구(WTO)는 <Tourism 2020 Vision> 보고서에서 2010년에 세계 관광객은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며,

2020년까지 1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세계 관광객 수는 매년 4.3%, 관광수익은 매년 6.7%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21세기에는 관광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자가 관광목적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관광을 위주로 하는 활동보다는 방문지에서 개최되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으로 인해 벌어들이고 있는 관광수입은 뉴질랜드의 주된 산업인 1차 산업의 수입과 맞먹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음악제’ 또한 잘츠부르크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때

침체기를 거쳤던 ‘루브르 박물관’은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영화 <다빈치 코드>에 촬영협조를 통해 입장수입의 상승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은 곧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실현이

필요하다. 첫째, 공교육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는 반드시 가난하다는 인식은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교육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양교육의 결여가 유명 뮤지컬, 혹은 스타 마케팅을

통한 공연에만 혹자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연분야에서의 초대권 비율의 축소이다. 많은 공연들이 초대권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돈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대권 비율의 축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다. 어떠한 분야든 공동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 관련 인력

및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다 많은, 그리고 질 높은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체험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가 점차 발전되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문화의 향유 방식이 점차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예술 분야의 매력을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관람객, 혹은 여행객으로 하여금 체험 및 참여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문화강국은 곧 경제강국이다. 하지만 경제강국은 반드시 문화강국일 수 없다. 문화의 발전이야말로 21세기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문화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고주경 '우리들의 눈' 회원, 시각장애아 미술 교육자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만져봐도 돼요?”

시각장애 아이들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다. 아이들이 작품을 만져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들도 이렇게 묻곤 한다. 늘 받는 질문이지만 난 늘 난감하다.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에 갈 때면 꼭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곤 한다. 만져볼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작품이 있는지. 그러나 사실 만져볼 수 있는

전시, 들을 수 있는 전시는 그리 흔하지 않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원칙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감상하는

예절을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이들에게는 ‘손이 눈이라는 점’이 아이들과,

엄마, 선생님들을 늘 난감하게 하는 동시에 이 원칙에 대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전시장에 다녀온 뒤, 그 다음 주 미술시간이

되면 자신들이 본 것들, 아니 느껴본 것들에 대해 온몸으로

이야기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다. 일반 아이들과도 수업을 해

봤지만, 이 아이들처럼 일주일 전에 본 전시 내용을 인상 깊게 간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무척 드물다.

내년에는 가끔씩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대신에 ‘손으로

보시오’라고 쓰여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 할 것이다. 엄마들은 뿌듯해 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덜 난감할 것 같다.

내가 제안하는 문화정책 세 가지

로튼피치 청소년 사이버 문화광장 ‘글린’ 회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점차 문화선진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창작 문화예술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문화를 수입해오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민들에게 외국의 선진 문화를 맛보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창작 문화예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소외 받고

있는 연극이나 뮤지컬에 말입니다. 스크린쿼터 정책처럼,

오페라극장 같은 곳에서 일정한 기간은 국내 창작 연극이나

뮤지컬을 올리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여 소극장과 같은 시설을 늘려서, 국내 예술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뮤지컬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뮤지컬은 모두 서울에서만 막을

올려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께서 부산에

훌륭한 공연장을 만들어주셔서 여기 부산에서도 많은 공연이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문화’라는 과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연극 등을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보여주거나,

직접 글을 써보는 등의 창작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문화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을 기르는 교육을 꿈꾸며

윤은희 가정주부

박물관에 가면 늘 대하는 진풍경이 있다. 유물을 설명하는 선생님 뒤로 많은 아이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이다. 인솔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있고 학구열 높은 소수의 아이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다. 그 뒤의 무리들은 유물을 구경하듯 걸음을

재촉하고, 맨 뒤 열을 차지한 몇 명의 개구쟁이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장난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풍경은 방학 때가 되면 한

전시실에 세 팀까지도 볼 수 있다. ‘박물관에 임하는 성실한 기본자세’를 취했던, 즉 한 손엔 수첩을 들고 열심히 제목,

연대, 작가를 옮겨 썼던 나의 유년시절이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걷기’가 되어버린 박물관 견학이 재미있는 체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속에 놓인 아이들의 모습과 사지선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던 학력고사 세대인 나의 모습이 박물관에서 서로 닮아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예술적 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술적

감성과 창작의 경험은 창의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교육의 현 주소는 수행평가 점수에

맞추어져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외우고 피아노 연주는 필수 과정이 되어버렸다. 예술교육이 평생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획일화된 실기 중심의 교육이 예술교육의 전부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이런 모습들이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경험하게 함으로 창의적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술교육의 방향성이 되어야한다.

나는 박물관 풍경이 달라지길 꿈꾼다. 아이들이 한손엔 스케치북을 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그려봄으로 진정

작품과 대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 스스로 발견한 아름다움의 실체를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토론을 통해 얻은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으로 박물관 체험이 마무리되는 그런 꿈을 꾸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예술적 감성 체험의 한 단면이다.

가끔 이런 나의 꿈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 나의 알팍한 미술사 지식을 신뢰해 박물관 견학을

부탁 받을 때이다. 아이들에게 한 전시실을 잡아 각자 둘러보게 한 후, 하나의 작품을 선택해 그려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보자고

하면 아이들의 첫 반응은 “그림 못 그려요”라며 볼멘소리로 합창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놀랍도록 작품을 깊게 느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보내오는 보고서에서

‘눈을 감으면 작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맺음말을 읽을 때 감성교육의 대안을 보게 된다.

이제 미술, 음악,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감성적 체험을 경험하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 그와 함께 이러한 방법론을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평등에 입각해 누릴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예술교육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체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 분산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공교육의 틀 속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박물관 분야에서는 어린이 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물론 몇 군데 어린이 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아이들의 전통문화 체험에 머물고 있다. 예술정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어린이 박물관 건립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어쩌면 예술교육은

그 어느 교육 분야보다 중요하며 그에 대한 투자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잃어버렸던 세계 되찾기

김정호 직장인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저에게 미술은 '잃어버린 세계'였습니다. 미술교육이라고는 찰흙공작이나 종이접기가 전부였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시각적 이미지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음을,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작은 미술관 견학 프로그램에서 체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세계를 찾은 것이지요.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도화지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예쁜 수채화를 그려 넣을 여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각적 이미지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술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술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서울 지역 맹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교육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아동들도 미술을 통해 자신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대리민주주의와 예술가

김윤환 예술가,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자

1번이 될 것이냐, 아니면 2번이 될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온 사회가 뜨겁다. 사람들은 어디든 앉으면 누가 대통령감이니 아니니 이야기꽃을 피운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절대자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맞이할 것이다. 국민들은

그저 투표용지 한 장에만 매달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기를 빌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만 잘 뽑는다고 나라가 잘 되겠으며, 또 어떻게 매년 가장 훌륭한 후보를 뽑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권력에 맡겼던 정치는 오히려 배신과 억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던가.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에 냉소적이면서도 외면하지는 못한다. 소수 권력자들의 잔치라는 것을 잘 알지만,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므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 민주주의란 뭘지?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사안에 대해 모두가 참여하여 모두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 풍토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닫고 현실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어디까지나 '구경꾼'일 뿐이다. 그것은 TV를 통해 보는 스포츠 게임과도 같다. 아니 스포츠 게임보다 더 재미 있는 비싼 게임이다. 국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채, 사회의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선거의 장에서 무기력할 뿐이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사회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뽑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왔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시민은 누구나 선출될 가능성이 있게 되어 누구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권력의 집중화와 부패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선은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국왕을 뽑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말 국민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굳이 절대자를 뽑으려고 저리 안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게,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에서 특이한 점은 백 명 이상의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부분 회사원, 청소년,

농부, 예술인 등 일반 시민이다. 그들은 언론의 외면 속에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대중들로부터

'네 까지 게 감히'라며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그들의 등장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만성적인 대의민주주의의 타락 속에서 붓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며,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각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는 곧 정치적 창조성의 발현으로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창조적인 인간은 대리민주주의를 거부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술이

하나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사회는 창조적 주체들의 민주주의의 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금은 누구를 나의 대리로 뽑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나의 창조성과 나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유다.

공공미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김지현 인디고 서원 발행 <인디고잉> 청소년 기자

문화예술을 향유한다고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관에서의 감상은 마치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예술이 좀더 대중들과 가깝게 만나고 있기도 하다.

예술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 사회의 삶과

대면해야만 한다. 일반인과 예술 사이의 접근이 쉬워져야 하고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우리 삶의 모습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 삶을 기억하고 성찰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잘 실현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책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아직 미미하지만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미술 움직임들도 볼 수 있었다. 예술가 혼자만이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미술은 지식인들만의 소유물이 되어 체제를

미화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간적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세상까지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미술을 통해 사용미학으로서의 미술의 기능을 회복할 때,

예술을 통한 우리의 유토피아 실현도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린이 **정택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지에서 워크숍 및 국제교류로 작품활동을 펼쳤다. LA모던아트갤러리 초대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10여 회의 개인전을 열고 150여 회의 국제전과 그룹전에 초대, 출품해왔다. 출판미술 영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내 마음의 트랙>, <내 마음의 간이역>,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1, 2>, <이녹 아든>, <세 가지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꼬마 철학자>, <걸리버 여행기> 등 많은 책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했다.